



미국, 커피로 달팽이 퇴치한다

달팽이류를 채소밭이나 정원에서 몰아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유독물질이 발견됐다. 미국 하와이 소재 농무부 농업연구기구 과학자들은 실험결과 정원의 달팽이류들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을 뿌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진한 커피 한잔 정도면 달팽이류들이 몸부림치다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페인이 달팽이류들에 신경독(毒)작용을 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원사들과 과채류 재배업자들은 이번 발견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달팽이류들이 식물을 먹어치우지 못

하게 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달팽이류 퇴치용 기존 살충제들은 독성이 농작물에 잔류하기 때문에 사용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카페인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성분으로 간주되고 있어 해충 퇴치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자들은 달팽이류가 카페인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실험을 계속해 1~2% 농도의 카페인 스프레이로 달팽이류들을 죽일 수 있으며, 이보다 100배 약한 농도로도 달팽이류의 식욕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스턴트 커피 한잔 속에는 카페인이 약 0.05% 들어 있으며 끓인 커피 속에는 좀더 많이 들어 있다.

중국, 화훼 수출전략품목 육성

호접란등의 관리비 면제, 항만 통관전용창구 설치 등 중국 정부가 화훼를 수출중점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베이징농업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는 화훼수출을 대외무역 확대의 중요 발판으로 삼고 호접란 등 인공번식이 가능한 화훼에 대한 관리비 면제조치를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화훼 수출입이 집중되는 항만에는 '녹색통로'라는 수출 전용창구를 설치해 24시간 통관을 실시하는 등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

국의 신선절화는 조만간 일본으로 대량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이토조오상사가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최대의 생화생산업체인 유라시아농업과 합작으로 일본인 기호에 맞는 생화를 중국 내에서 대량 생산해 올 가을부터 수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국 랴오닝성 등에 전체면적이 60ha에 달하는 대규모 온실 5개를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농업은 일본 수출전문 온실을 따로 지정해 일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색깔과 품종을 중심으로 장미·나리·국화·카네이션·붓꽃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농민신문